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줄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3 호 / 발행일 : 2003년 10월 5일

수해 섬마을에 '희망의집' 짓다



9월 24일 새벽 6시, 출발준비에 분주한 자원봉사단 모습

태풍 매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이 지난 9월 24일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고려병원의 엠브란스와 대형버스에 나눠 타고서 30여명의 자원봉사단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며, 수해민을 위한 희망의집을 건

축 중이다. 지난 9월 29일에 봉사단 두 팀이 출발하였으며, 앞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봉사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까지 콘크리트 기초시멘트공사를 마친 상태이며,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9월 24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관련기사이다.

수해 섬마을에 희망의집 짓는다!

경남 마산시는 가구당 약 2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1호는 주님의교회(문동학 목사), 2호는 사랑의교회(옥한흠 목사)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 공사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동교회(전광섭 목사) 이관상 장로가 현장 책임을 맡아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미 주님의교회 봉사단원 30명이 공사 대열에 합류했다. 희망의집 1호 입주자인 허명선 씨는 올해 5월 암으로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바지락 채취와 미역 양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태풍으로 집은 물론 생계수단이었던 배가 완파됐다. 2호 입주자 고연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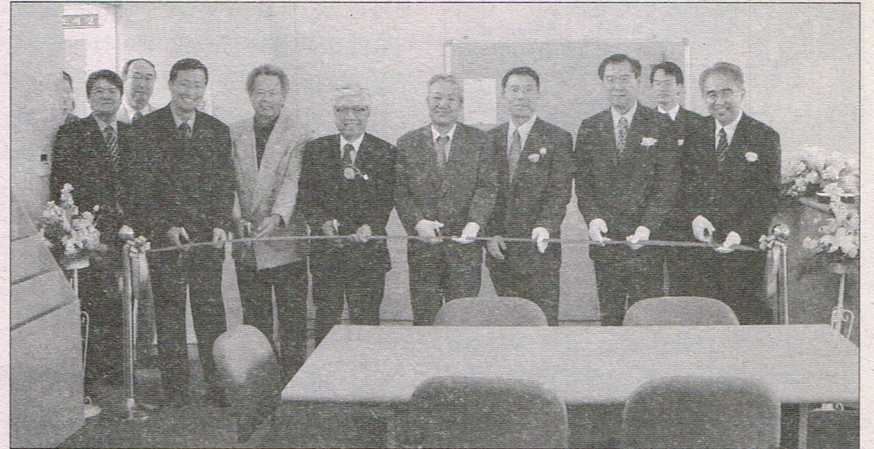
는 2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장애아 아들과 함께 바지락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마을회관에 기거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 김원규 진동면 면장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원들이 10여일 넘게 물품 지원 뿐 아니라 복구 작업까지 도와줘 무척 고마웠는데 희망의집까지 지어준다니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현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사랑에 대해 수해민들이 매우 고마워한다"면서 "한국교회의 지원이 있는 한 희망의집 짓기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역자와 청년부의 축구시합



청년1, 2부는 지난 9월 28일 4부에 배를 마친 뒤 문동학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교역자와 함께 정신학교 운동장에 모여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조출한 형식의 미니 체육대회였지만 그 의미는 청년1, 2부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교역자 분들을 다소 어렵게 여기던 많은 청년들이 허물없이 교역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인 미니 축구대회는 전후반 15분으로 구성되어 노련한 축구실력의 교역자와 젊음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간의 시합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밀어붙였으나 교역자팀의 막강한 실력 앞에 두 골을 내주었다. 응원하며 지켜보는 청년들은 '내가 나가보겠다'고 발을 걷어붙이기도 해주위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자매들은 '남자들만 운동하느냐'며 소녀적 향수를 자아내는 고무줄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경기를 마친 후 삼겹살파티에서도 '짧고 굵은 축구시합'에 관한 이야기로 모두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이번 미니 체육대회를 하고나서 한 형제는 "문동학 목사님의 순수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좋았다.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교역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전수경 기자



'5층 도서관 개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성도에게 개방

9월 28일 주일 오후 1시, 5층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문동학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당회원 및 교우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은 테이프 절단으로 시작하였다. 그동안 성도들로부터 기증받은 약 3,000여권이 넘는 도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30여석의 열람석과 어린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쿠션바닥이 마련되어 있다. 개관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현재 매일 두 명씩의 자원봉사자가 준비되어 세 시간씩 교대로 도서관을 관리할 예정이다.

도서부장 하화주 집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들로부터 도서를 기증받기를 원하며, 좋은 책은 구입도 하고, 신양잡지를 비롯 좋은 잡지는 구독할 계획이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음료수를 들고는 입장할 수 없고, 모임이나 회의 또한 할 수 없다. 조용히 독서하거나 목상을 위한 공간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연결사역 시작

오는 10월 12일, 자원봉사연결사역이 시작된다. 교회 입구에 자원봉사연결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매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성도들의 자원봉사에 관련된 문의와 연결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10여명의 자원봉사연결팀이 조직되어 석 달이 넘는 시간동안 준비해 왔다.

자원봉사연결사역이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사역을 말한다. 교회 안과 밖을 둘러보면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봉

사의 손길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봉사의 뜻이 있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봉사를 원하지만 필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가 많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자원봉사연결팀이 조직된 것이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섬김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을 안내하게 될 예정이다. 구제 및 장애인사역, 영어동시통역, 예배준비 및 예배시간방송사역, 함줄함을 신문기자, 도서관봉사, 수해지역복구사역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봉사사역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교회안팎을 구별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임시당회, 수해지원금 5,000만원 결의

임시당회가 9월 20일 오전 6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당회에서는 태풍 매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민을 위한 교회의 지원을 협의하였다. 결의된 내용으로는 태풍 재해복구에 5,000만원을 선지원하되 방송국 등에 금액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하

도록 하고 특별헌금 중 이 액수를 넘는 부분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른 안건으로는 음향보조기사를 채용하여 주중 학교행사에도 교회에서 지원하며, 운동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임동진 장로가 단장으로 있는 예매에 문화선교차원에서 3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수해복구자원봉사보고

마산시 진동면 송도 1차 수해복구활동을 다녀와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포스터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고 한국교회였을까? 언제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를 앞세웠는가?

지난 9월 22일부터 현지에 가 계셨던 윤덕영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의문이 풀렸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현지 주민들이 포스터를 보고 하는 말이 '사랑한다카면서 우째 이런 태풍 같은 재앙을 줘니까?' '.....' 그렇다. 우리같이 믿음 약한 성도가 보기에 하나님 사랑과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행(남 13명, 여 9명)은 23일 새벽, 교회에 모여 주님과 주민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되고자 버스에 올랐다. 이동 중에 사역지가 송도로 결정되고 점심식사 후 도착한 마산 앞바다의 총 22가구의 자그만 송도 섬은 태풍 피해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섬 주민 대신 물으로 올라간 배 세 척

과 부서진 집들, 그리고 부두 앞의 수북한 쓰레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눈에 보이는 몇 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고 피부는 초콜릿 색이었는데 모두들 경계하는 빛을 띠어 보였다.

기독교연합봉사단을 통해 우리 교회의 할 일이 집이 망가진 옥이네에게 집을 한 채 지어주는 일로 결정되고

도서실 개관을 준비하며

지난 9월 28일, 드디어 우리 교회에 도서실이 개관되었다. 여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5,000원 정도의 책들을 분류·정리하여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전에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교회에는 복음전파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교회 도서관은 서양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고대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세 이전에도 이미 많이 존재했으며, 특히 중세 수도원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전에 큰 임무를 담당하였고 도서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 도서관은 타기관의 도서관 활동에 비교해볼 때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교회 도서관은 교회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봉사단의 할 일은 헌 집을 헐고 건축자재를 날라주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했다. 모래를 바지선에서 양푼으로 퍼 올려 나르는 일, 벽돌과 시멘트 나르는 일 등 모두들 평소에 안 해본 일들이고 피약별 아래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누구 할 거 없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일하며 웃음은 계속 입가에 서 떠날 줄 모른다.

김소일 장로님의 예언 말씀 '이번 태풍으로 이 동네는 완전히 새동네가 되겠군. 집도 새집이 들어서고 특히 사람들 하나를 영접하게 되고...' 사흘

동안 모두 열심히 일했다. 왜 갑자기 이런 낙도에 와서 이런 일로 시간과 땀을 흘려야 하는지 묻지 않고 오직 내 흘린 땀방울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통과하는 파이프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몸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는데도 왜 모두들 웃고 즐거워 지는걸까? 여기에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망설였었는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참 언제나 되로 드러도 말 정도가 아니라 가마니로 갓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다.

/ 김용남 성도(7-11구역)

기능과 활동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들을 파악하여 보조하는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교육과 조사·연구 및 정보생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교역자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서연구·설교·교육·상담·봉사·교회운영 및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의 역사적 자료 및 각종 박물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겸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신자인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자율적인 자기학습 기관, 문화센터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이나 전망에 비해서 도서관 운영 자체가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교회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추진하지 못하며 설사 도서관을 설치한다해도 대다수의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한다. 독서가 보편화된 문화활동으로 자리잡지 못하

고 있는 우리 사회풍토와 충분하지 못한 재정은 소장 도서의 빈곤을 초래해 사람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회 도서관을 일회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그동안 문화사역을 늘 부수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편견이 문제이다. 교회 도서관은 교회 사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교인의 질적인 성장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구성원들에 위해 분명한 가치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외형적 과시와 지적인 허영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개관한 이유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겠다. 위에서 열거한 교회 도서관의 기능들을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하여 '함'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 윤복신 집사(5-8구역)

몽골선교보고 두 번째이야기(4회 연재)

눈물의 예배로 첫날을 드리며

나는 몽골과 몽고라는 국호를 혼용하면서 외몽고는 1990년에 구 소련 체제(USSR)가 독립국가연합(CIS)으로 해체되면서 독립했고, 내몽고는 여전히 중국에 속한 일종의 사회주의 분단국가로 알고 있었다. 한국과 몽골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이의 분단국으로 언어와 종족에 뿌리를 같이 하며, 13세기 세계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과 원나라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한 쿠블라이칸이 말달리던 끝없는 초원, 우리 나라에 황사를 몰고 오는 고비사막, 그리고 알타이산맥과 거대한 호수를 고르게 갖춘 유목민의 나라에 대한 이국적 동경과 동질감에서 오는 막연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몽고란 명칭은 변방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몽골인들을 우매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중국이 비하해서 부른 명

칭이라는 것, 한국과 국교 정상화 재개 이후 대통령이 오가면서 북한대사관이 철수했다는 사실, 일주일만에 세 번 직항로가 만원상태로 운항된다는 것, 자본주의 체제개혁으로 문호를 열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등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국민의 94%가 라마불교 및 토속신앙을 믿으며 이슬람교도가 6%를 차지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앞두고 울란바타르에 대규모 성당이 건축 중에 있었다. 그렇긴 해도 몽골인들의 성씨를 말할 정도는 구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몸에 밴 사회주의 체제를 아직 말끔히 벗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단체는 비정부기구(NGO)로 활동하는 실정이다.

8월 21일 목.

드디어 인천공항 출발 세 시간만

인 11시 30분 경에 울란바타르에 도착. 40여 개의 수화물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해바라기 출신 조성곤 집사는 아티스트 활동 중에 아끼던 음향기기 대부분을 필요로 하는 현지 교회와 울란바타르대학에 기증할 목적으로 따로 포장해왔다. 행여 현지에서 팔아버릴 밀반입 물품으로 둔갑할까하는 우려 때문에 공항직원이 통관을 허락지 않았다. 할 수없이 '몽골 추수(추석)2003' 행사의 일환으로 한몽골 문화행사에 참석기 위해 마침 도착한 김장환 목사 일행 및 이영무 단장이 이끄는 할렐루야 축구단 등과 함께 하게 될 도착예배를 위하여 울란바타르대학에서 기증목록 확인서를 갖추어 오기까지 환영 나온 총장 부인 이계심 목사와 우리 일행 중 이철웅 선교사를 남겨두고 공항을 떠났다. 울란바타르대학과 나란히 위치한 제일교회에 도착해서 한몽친선협회 회장, 한국대사, 울란바타르 방송국장 등의 환영을 받으며, 몽골공직자 대부분이 젊은 층이어서 몽골이 활기찬 신생국이며 하

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때가 찬 나라라는 첫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목을 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첫 문화선교지가 될 울란바타르 외곽에 위치한 성긴하이르항 교회로 향했다. 한국에 계신 형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는 예배인도자의 안내로 우리는 간단한 예행연습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의 예배를 인도했다. 간단한 소개에 이어 찬양과 율동, 권오승 장로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5)는 설교의 말씀과 진하주 집사의 간증, 두 편의 팬터마임, 특별 복음성가, 목사님의 축도, 예배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끌어안고 풀어주지 않는 뜨거운 환영 등 눈물과 환희의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현지 예배인도자나 팬터마임 해설, 설교말씀, 간증 등의 통역을 맡은 울란바타르대학 한국어과 출신 도우미들의 완벽 한 한국어 구사력과 헌신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며 긴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다음 호에 계속)

/ 이희숙 권사(1-7구역)

허 혁 성도의 주일 주방봉사일이 두 번째 이야기(2회 연재)

막내가 국수를 삶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다른 일이 바쁘시기에 같이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집사님들을 뵈 때마다 신앙을 떠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한다. 몇 만 그릇의 국수를 삶은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의 이유였던 부채의식은 없어지고 다만 나만을 위한 게 아닌 무언가를 누구와 같이 한다는 것, 그것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다는 게 비록 자주 늦긴 하지만 나를 주일 아침에 일어나게 한다.

장 집사님이나 공 집사님, 정 집사님이 이 글을 보면 많이 어설퍼하시고 '많이 컸다'라 말씀하시겠지만 세 분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들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막내의 위치라 세 분의 이론을 참고하여 간단히 국수 삶는 과정에 대해 써본다.

간단히 절차를 보면 물을 끓이고 국수를 풀어놓는 준비단계, 국수를 넣고 두 번 끓이는 단계, 마지막으로 건지고 식혀 씻어내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네 통을 풀어놓고 물을 최고조로 끓여야 한다. 미리 국수를 풀어 놓는 것은 동시에 넣기 위함이고 네 통만을 푸는 이유는 맛있게 끓이는데 최적의 양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다. 넣자마자 잘 저어서 솥 바닥에 붙거나 서로 엉겨 붙지 않게 한 다음 뚜껑을 덮고 끓인다.

뚜껑을 덮은 후 대략 세 통 정도의 국수를 또 풀어 다음 번 끓일 준비를 하고 나면 대략 첫 번째로 끓어오르게 되는데 덮은 솥뚜껑의 2/3 정도에서 김이 나오면 열어보지 않고도 끓어오름을 알 수 있다. 이 때 작은 바가지로 한 바가지 정도의 찬물을 부은 다음 골고루 식도록 저어준다. 다시 뚜껑을 덮고 한 통의 국수를 풀면 두 번째 끓게 되는데 이 때 끓어 넘치지 않도록 찬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동시에 익는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 여기서 익는 정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다수설은 국수를 들어 올렸을 때 투명해진 상태

를 익는 것으로 한다는 설이다. 내가 애용하는 소수설로 저을 때 국수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때가 건지는 시점이라는 설이 있다.

일단 익었다 판단되면 즉시 큰 바가지로 네 바가지 정도 찬물을 부어 식힌 다음 건진다. 이 때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두 가지 설이 있다. 다수설은 바구니에 넣고 찬물을 쏟아 붓는 것이 빨리 식는다는 게 그것인데 물의 소모량이 큰 것이 단점이다. 소수설로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퍼낸 국수를 넣어 식힌다는 것인데 양이 많은 경우 골고루 식지 않기에 손을 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식힌 후 씻어내면

배식이 시작되는데 배식하는 분들의 썸썸이에 따라 한 통에 10인분에서 20인분까지 배식이 가능하다.

가끔 힘들 때 대충 끓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면 굳이 국수집을 찾아 비결을 묻고 오신다는 세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진다. 세 분과 함께 감히 나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일치하는 가장 맛있게 끓이는 결정적인 비결은 항상 연구하고 최선의 정성을 들인다는 점일 게다. 세 분 중 한 분의 말씀대로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너무 많이 나가 국수가 모자랄 정도로 인기 있는 날엔 사춘기 소년처럼 뿌듯함이 느껴진다. <끝> / 허 혁 성도

리더훈련 화요반 고선옥 집사의 간증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나의 신앙간증

저는 독실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무남독녀로 자라며 집안 분위기에 따라 매주 교회에 나가며 한 번도 내가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한 후 성찬예식을 하면서 경험한 뜨거움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고 내 자신의 열정 자체 때문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꿈꾸던 저는 고교 기독교학생회 선배였던 지금의 남편을 여러 선배들의 중매로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첫 아들을 낳았고 그 애가 8개월이 좀 지났을 때 원래 캐나다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저의 북미에서의 생활은 그 나이에 겪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습니다.

박사 학위를 위해 미국에서 살 때입니다. 결혼한 학생들이 사는 학생촌에는 기독교 신자가 몇 있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학생부인 중 한 분이 소위 구원파(?)였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디서 언제나 누구를 보든지 "당신은 교회에 나가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며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느 것도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 놀라게 했고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건 아닌

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하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식품점에 가서 성경을 한 권 새로 사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거듭남이 무엇이며, 제 신앙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과 함께 진정으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추하고 부끄러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고통을 겪으며 정말 하나님이신 그 분이 참혹하게 돌아가시면서 저를 죄 없는 순백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간섭해 오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I am the Princess of almighty God!" 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모든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용서받은 확신이 없이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갇혀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빈 후로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죽음에 나를 못박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책읽기모임 권장도서

안셀름그린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읽고

9월 14일 오전 11시, 5층 도서관에서 '좋은책읽기모임'이 있었다. 다루어진 책은 안셀름그린의 「아래로부터의 영성」(본도출판사)으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안셀름그린 신부는 다채로운 영성강좌와 강연뿐 아니라 지금까지 8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특히 칼 융의 분석심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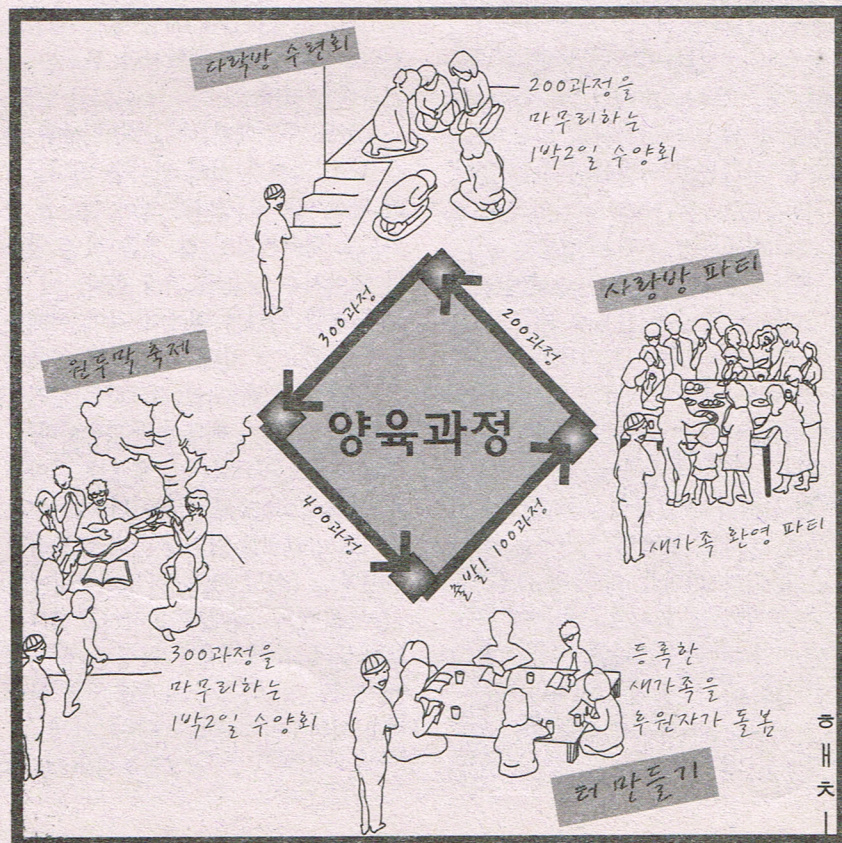
영성의 역사 안에 존재해온 여러 경향들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다.

영적 삶의 길은 대개 위로부터의 영성으로 시작된다. 이 길을 건다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위로부터의 영성을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접목시켜야 하는 때가 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위로부터의 영성은 본래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압박받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분열이 일어나 병들게

되기도 한다. 늦어도 삶의 중반기를 지나기 이전에 이와는 반대쪽의 축인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고통, 각종 질병, 상처, 무능력들 속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통해 우리 삶의 성숙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찾게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무능함과 화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빈 손으로, 온몸이 굽히고 다친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 팔 들고 행복하게 되며, 우리의 무능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가득찬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물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물을 한 컵 마심으로 내 갈급함을 해결하는 심정으로 한 번 친히 읽어보시기를 추천한다. / 이정원 집사



결혼, 아름다운 시작을 돕는 사람들! 『예식부 자원 봉사자』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일 토요일마다 두 건의 결혼식(오후 2:30, 5:30)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결혼예식 사역을 책임지고 맡아 봉사할 팀으로서의 예식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 없을만큼 조직면에서나 사역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서로 협력하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매우 조아(條兒)한 상태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예식을 본인 가정의 일처럼 생각하고 곁에서 돕고 축하해주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 사무실에서 소정의 결혼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예식 담당자인 박의일 전도사를 통해 담임목사의 주례 일정 확인을 받으므로 최종 일정을 확정짓는다. 결혼식을 2, 3주 앞두고 신랑과 신부 또는 가능하면 혼주는 주례자인 담임목사와 면담, 결혼식에 관한 담임목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혼예식 담당자인 박의일 전도사를 통해 당일 결혼예식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안내받고 확인받는다.

결혼식은 주로 지하 1층에 있는 중예배실에서 이루어지며, 앞으로 구성될 결혼예식사역팀의 구체적인 자원봉사 임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을 읽고 토요일 오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예식에 자원 봉사자로 많은 남녀 성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당일 예식 준비부(2명): 주례목사와

무대세팅 그리고 신랑 신부와 혼주를 전체적으로 돕는다. 피로연과 폐백 상황을 혼주, 교회 사무실과 조율하고 주차 안내를 포함한 결혼예식 전반을 확인 점검한다.

●예식 진행 안내부(2명): 예식이 예배 형식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객들 착석 안내와 경건한 결혼예배 분위기 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음향부(1명): 교회 음향기사를 도와 마이크와 무대 세팅을 돕는다.

●영상부(3명): 결혼예식 때 이루어지는 영상을 한 시간 전 미리 시연해 보고 결혼예식 때 영상을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한다.

●조명부(2명): 음향, 영상부와 함께 조명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음악부(1명): 결혼예식 때 축하 및 반주를 맡아준다.

영아부 아가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러오세요

2부예배가 끝나면 식당 입구는 항상 붐비지만 일주일 만에 손주를 보시려고 맞은편 영아부 방을 기웃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은 마냥 즐겁다.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겨서 상봉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게 한다.

영아부는 0세부터 24개월까지의 아기들이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울동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서 이 다음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새로오신 정재경 전도사님과 선생님,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모두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달팽이집을 지읍시다' 울동을 했다. 영아부방은 좁았지만 모두는 즐거움에 넘쳤다.

오늘도 주일예배 때 교회에 생후 처음 나온 아가가 있어 인사를 했다. 거의 잠만 자던 신생아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빙글거리고 첫 돌쯤 되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 한다. 이 때는 당분간 엄마가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줄 필요가 있다. 아가들이 무릎꿇고 눈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순진한 모습은 어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다.

영아부는 자모실(주일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과 구별되며 탁아실도 아니고 말그대로 아가들이 직접 드리는 예배이다. 식당 맞은편 영아부실에서 11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1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선생님들, 그들만의 특징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마음을 합하고 있다.

/ 김갑수 권사(영아부)

떡볶이를 만들며 함께하는 여유



9월 21일 주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았다. “음... 좋아...”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고등부 떡볶이 파티가 있는 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 집으로, 학원으로 바로 향하던 고등부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만들며 함께하는 여유를 누리게 하고 싶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테니스 코트장 옆 나무 그늘 밑으로 갔다.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부르스타를 중심으로 웅기종기 조별로 모여

앉았다. 물을 떠오는 아이, 맛을 보면서 고추장을 풀어 넣는 아이, 달라붙어 있는 떡을 떼는 아이, 아무도 누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일을 쏙쏙 찾아서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각 조별로 특별한 것을 준비해왔는데 떡볶이재료로 무늬만 밤인 고구마를 넣은 조, 양배추와 삶은 계란으로 진정(?) 떡볶이를 뿔낸 조, 새우와 만두를 넣은 조, 이렇게 다양한 떡볶이를 서로 맛보며 아이들은 크게 웃고 또 웃었다. 우리의 밝은 웃음만큼이나 하늘도 높고 푸르렀다.

/ 박혜경 기자(고등부)

교회소식

▶ 교회 홈페이지가 www.pcltv.org에서 현재 시험가동중입니다.

유소년축구 홈페이지도 참고 바랍니다. (youthsoccer.cyworld.com)

▶ 전교인 헌혈이 사회선교위원회 구제부 주관으로 9월 21일 주일에 교회 입구에서 있었으며 이 날 115명 가량의 성도들이 헌혈에 참여하였습니다.

▶ 도서관이 5층에 개관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개관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을 받습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2004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0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태풍수해 3차 구호봉사단 모집

우리 교회는 희망의집 1호(김용우 청년)에 필요한 경비일체와 자원봉사 지원을 완공식까지 약 한 달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22가구 밖에 안되는 송도 섬마을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년이나 학생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 증명서를 발부합니다. 현재 1차 봉사단은 23명(남 14명, 여 9명)과 최상용 집사께서 인솔하신 고려대 의료봉사팀 14명 등 총 37명, 2차는 11명(남 8명, 여 3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 문의: 구제부장 남장희 안수집사 (016-502-8287)

시기인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아름답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다. 미래의 수험생 학부모들도 참여하면 자녀들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될줄로 믿는다. / 김영미 기자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헌금’ 대신 ‘봉헌’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순서 가운데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순서는 원래 ‘봉헌’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 속에서 봉헌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헌의 의미는 단순히 돈이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적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성을 다하여 경청한 무리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는 감사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순서를 ‘헌금’이라는 용어로, 즉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로 지칭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봉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마땅하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02-416-5181
홈페이지: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핸드폰: 011-466-4736

▶ 이메일: chhylee@korea.com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집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분명 고난의